

2020년 11월 1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/ 제공일: 11월 19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전북 정읍(동진강), 전북 김제(만경강), 경기 용인(청미천)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 검출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: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전북 정읍(동진강), 전북 김제(만경강), 경기 용인(청미천)에서 채취(11.16~11.18)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결과, H5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.

※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~7일 소요 예상

-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,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.

-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(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)
- ② 반경 10km 지역을 「야생조수류 예찰지역」으로 설정,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·검사 강화
-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

- 아울러, 경남 사천(사천만)과 경기 용인(청미천)에서 채취(11.11)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검사 결과,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로 최종 확인(11.19.)되었다고 밝혔다.